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한국 ‘동성결혼 법적 허용’ 반대 58% 찬성 34%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률 높아져... 20대 66%

한국갤럽이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한 전화 설문 조사를 한 결과, 34%가 ‘찬성’했고 58%가 ‘반대’했으며, 8%는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년 6개월 전인 2014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이지만, 2001년 조사에서 ‘찬성’이 17%였던 것에 비하면 당시보다 두 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찬성(66%)이 반대(29%)를 앞섰다. 나머지 3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모두 절반 이상이 반대의 뜻을 표명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세대 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30대는 52%, 40대는 54%,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70%와 76%가 반대했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질문했다. 그 결과 ‘선천적’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고, ‘양육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후천적)’는 대답이 절반에 가까운 49%였다. ‘양쪽 모두에 영향 받는

다’가 13%, 10%는 의견 유보였다. 남성 또는 여성끼리의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보는지도 물었다. 이에 56%는 ‘사랑의 한 형태’, 35%는 ‘그렇지 않다’라고 각각 답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한 동성애자의 취업 기회에 대해 물은 결과 ‘일반인과 동일한 취업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90%를 차지했다. ‘그래선 안 된다’는 7%였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GNPNEWS]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니라(레위기 18:3~4)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지내며 자신의 감정과 기호가 기준이 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는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도나우강에서

자켓 하늘 아래 고요히 흐르고 있는 강 저편으로 세체니다리 와 부다왕궁이 보인다. 강가에는 철재로 만들어진 60쌍의 신발들이 이리저리 놓여있다. 남자 구두, 여자 구두, 아이 신발, 운동화, 부츠...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신발들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이곳에 남겨져 있다.

이 신발들은 제2차 세계대전, 파시스트들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당시 그들은 강가에 나란히 세워져 신발을 벗도록 요구당했고, 무참히 총살당해 강으로 던져졌다.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죄 된 인간은 그 수많은 아픔을 스스로 치유할 수도, 위로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역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거대한 수량으로 도도하게 흐르며 막을 수 없는 저 강물처럼, 복음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고 성도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GNPNEWS]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요한계시록 21:4)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7)

백골부대에 배치 받아도 기쁘기만 합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미신이 심한 어머니를 둔 한 청년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내렸을 때 청년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백골부대였습니다. 군 기강이 세고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이곳에서 청년은 싱글벙글 늘 기쁜 마

음으로 임했습니다. 아니, 힘들수록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렵고 힘든 것도 기쁜 것으로 변화시키는 믿음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입대 전, 편한 부대에 배치 받게 해달라고 부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꼭 몸에 지니고 다니라며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들은 “어머니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적이 쓸데없다는 증명이 필요했기에 가장 힘들고 가장 혹독한 부대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좀 더 편한 데로 가야지, 일부러 힘든 곳으로 가려고 기도할 것까지 있나?”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렵고 힘든 것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며, 받은 구원이 너무 기뻐 그 어떤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수십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돈 몇 만 원 손해 보는 것 정도는 상관없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병에서 막 회복된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는 화가 나지



일러스트= 김경선

않습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 기쁘니까요.

이 세상의 고달픔이 예수 믿는 사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을, 그것도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다 사랑하다 대신 죽어야만 그 인간을 살릴 수 있기에 대신 죽어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GNPNEWS]

INSIDE

03 기획 | 캐나다 마약중독자, 기독교재활센터가 복음으로 치유를 돕는다

05 인터뷰 | 윤민선 전도사 “세상 끝나는 날 천국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08 부즈 인 시네마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제 동생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아

한국, 동성결혼 합법화된 서구 따라가



▶ 지난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 가정 축제'에서 25개국 대표들이 '생명 가정 호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출처: 국민일보 캡처).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서구 사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제시됐다.

지난 2~4일까지 서울에서 동성애 옹호·조장 문화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브랜드 맥버니 변호사(미국 애드버킷 인터내셔널 총재)는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동성결혼을 투표에 부치면 통과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주로 시민운동으로 시작하며 최종적으로는 인권 차원에서 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영국 크리스천컨선 대표) 역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까지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막고 동시에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받았던 고통을 호소하는 언론보도가 줄을 이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 트랜스젠더 문제가 생기고 이혼 법률이 약화되며 가족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진다."라고 전했다.

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거나 합법화 직전에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 온 이들은 "지금 당장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내는 일이 시급하다."며 한국교회가 동성결혼 및 동성애의 문제점과 건강한 가

족의 의미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회가 준비한 이번 대회에서 25개국 대표단은 동성애 반대와 생명존중, 1남1녀의 결혼제도 보호 등을 담은 인권선언문을 채택하고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맞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가정축제'를 열고 서울역에서 시청까지 왕복 3.2km 거리를 행진했다. 시민들은 '동성애,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 올리고 '동성애·낙태 반대' '생명 존중' '부모 공경' '자녀 사랑'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소강석 한동협 대표회장은 "과거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성경의 절대 가치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상전(思想戰)을 벌이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라면서 "단약 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GNPNEWS]

아시아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북한의 기독교

오픈도어선교회 조사 결과, 북한은 2017년 현재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이다. 그러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한 탈북자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탈북자 김충성 씨가 북한에서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과 복음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을 때, 그 방에는 빛이 있게 된다."

그는 "북한 정부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우리에게 있는 빛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그들의 가족들로부터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을 숨겨야만 한다고 전했다. 기독교인들은 늘 감시를 당하기에 기도를 한다거나 모임을 갖는 형태로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픈도어는 "김일성 일가의 통치를 숭배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의무이며 거부하는 자들은 체포,

수감, 고문 심지어 사형을 당한다. 기독교인의 모든 가족들은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는데, 그곳에서 매년 셀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고문과 매질과 중노동,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해 죽는다.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적발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감수해야 한다. 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아질 방법이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30만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있다. 김충성 씨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방송으로 복음과 기독교 음악, 세계뉴스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GNPNEWS]

한국

제10기 청소년복음캠프 접수 및 일정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10기 청소년복음캠프가 오는 8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4박 5일간 열린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1학년(2004년생)에서 고등학교 3학년(1999

년생)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이며,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7일(토)부터 7월 17일(월)까지다. 원서는 웹사이트(cafe.naver.com/goodnewsprayer)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섬김이는 청소년복음수련회, 복음캠프 수료자, 복음학교 수료자 가운데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훈련생 모집 기간과 동일하다. 문의 ☎ 010-4272-9905, 010-5146-4641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29 ~ 6.11)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스웨덴, 대학생 부정행위로 골머리... 작년 733명 정학

스웨덴에 있는 33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정학을 당한 학생 수는 733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하나님, 복지, 교육제도의 선진국인 스웨덴에서조차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학생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버드대, 음란·폭력 페이스북 대화 10여 명 입학 취소

하버드대가 페이스북에서 음란·폭력 대화를 한 입학 예정자 10여 명의 입학 취소를 취소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입학 예정자 100여 명이 만든 페이스북 메시징 그룹에는 아동학대나, 홀로코스트를 미화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이 저지른 말과 행동이 같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 된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스트리아서 어린 자녀 데리고 ISIS 가담한 부모 철창행

오스트리아 법원이 시리아로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참수 장면을 보게 한 부부 2쌍을 테러 단체 가입과 아동 학대와 방임 혐의로 9~10년형에 처했다고 AF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주님, ISIS의 악함이 다음세대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악의 통로로 이용된 부모들을 용서하시고 모든세대에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시옵소서.

ISIS '라마단 반격' 잇단 폭탄테러

지난 29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 잇달아 폭탄 테러가 일어나 각각 10명과 13명이 숨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ISIS가 자신들을 테러 배후라고 밝힌 가운데, 테러를 순교 또는 지하드(성전, 聖戰)로 해석하는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신의 축복을 위해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참된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여 한평생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자신을 확대하는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을 공멸히여겨주시시오.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십자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라마단 기간에 충만하게 전파되길 간청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6월 3주 ~ 6월 4주

6월 3주(6.19~6.24)

-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 010-7364-9982
- ▶ 경기 광주 / 문광교회 (최**) 010-3380-5781

6.19~20, 22~23(매일 10~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6.19~23(매일 14~19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 031-432-1590

6.19~23(매일 07~23시)

-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 010-7439-7020

6.22~23(매일 06~18시)

- ▶ 전북 전주 / 전주사본교회 (진**) 010-2638-1440

6.23(08~20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6.23(22시)~24(22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6월 4주(6.26~7.1)

-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최**) 010-4202-0079

- ▶ 광주 서구 / 십자가복음교회 (김**) 010-9883-2347

6.26~27

(매일 10~12시, 14~16시, 19~21시)

- ▶ 전북 전주 / 전주시향교회 (정**) 010-8295-6889

6.26~27, 29~30(매일 10시~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6.26~30(매일 14시~19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 031-432-1590

6.30(08시~20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6.30(22시)~7.1(22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7.30(08시~18시)

-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 010-5408-6348

캐나다 마약중독자, 기독교재활센터가 복음으로 치유를 돕는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이 1만 4천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1만 명당 2천 명 이하)의 지위를 상실했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마약중독의 대안은 없을까? 이미 마약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캐나다에서 복음으로 마약중독자를 치료한 사례를 최근 릴리저스 뉴스의 기사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프레디는 처음에 단순한 알콜중독자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강한 약물을 찾았다. 결국 메탐페타민이라는 각성제와 헤로인까지 손을 댔다. 그러는 사이 그의 거주지는 청소년구급센터에서 시작되어 성인이 되어서는 교도소에 이르렀다.

그동안 네 곳의 재활 프로그램을 거쳤다. 그리고 현재 기독교 재활센터인 '누가15하우스'에 오게 되었다.



▶ 누가하우스 재소자가 세례를 받는 모습 (출처: religionnews 캡처).

었다. 이제 33살이 된 이 중독자 프레디는 짧은 갈색 머리를 넘기며 말했다.

“나는 항상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다른 재활센터에서는 하나님이나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다른 센터에서는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돈을 주면 외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소자들은 규정을 어기고 센터 밖으로 나가 밤새 마약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 곳에 있을 수 없었던 프레디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누가15하우스'(이하 누가하우스)에 입소하게 됐다.

1년 정도 마약을 끊은 34살의 한 재소자 선 와일드가 말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이곳에 들어온 후, 평안함을 느끼며 정말로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하는 마약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마약 남용으로 인한 2016년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80% 증가해 900명이나 더 많아졌다. 주요 사망 원인이 된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이다. 이 약물은 최소한의 부

작용도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오피오이드계 진통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면서 약물 남용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 캐나다 의료진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옥시코돈과 같은 오피오이드를 처방했다. 불법 제조자들은 곧 중국에서 값싸고 쉽게 수입되는 화학품들을 사용해 펜타닐 알약들을 생산해 내기 시작했다. 이 약물의 초기 사용자들은 과다 복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숫자도 엄청났다.

이런 환경에서 마약중독자가 급증하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중독자들이 누가하우스와 같은 재활센터에 입소할 경우, 하루에 30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비용만으로 유지가 어려운 재활센터는 개인 후원자들과 교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누가하우스에는 교도소를 갓 출소한 24명의 남성들이 지내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최소 10개월 정도 머무르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성경 공부와 함께 알코올중독자협회가 마련한 12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매일 일정에는 이전 재소자들과 함께 하는 식사를 포함해 기도 시간이 있다.

회복중인 헤로인 중독자이자 누가하우스의 프로그램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제레미 루드가 말했다. “이곳에서는 싸울 수 없어요.



▶ 밴쿠버 다운타운의 노숙자들과 이야기하는 매튜 존슨 목사(출처: religionnews 캡처)

또 욕설을 내뱉지 못하게 해요.”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재활센터는 마약 남용을 막기 위한 교정에 집중한다. 하지만 누가하우스와 같은 기독교재활센터는 스태프로 일하는 목회자들이 중독자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독교재활센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허함이 마약 중독의 중요한 원인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 통해 영적 공허함 극복하도록

루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사슬을 끊게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같은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중독치유는 평생이 걸릴 수 있으며,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법이란 없기 때문이다.”고 누가하우스 관계자는 말했다.

이들 재활센터에서 성공이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혹은 그걸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교회 역시 나름대로 이들 중독자를 돕고 있다. 밴쿠버의 다운타운 동부의 세인트 제임스성공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매튜 존슨 목사는 지역 사회의 노숙자들과 중독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존슨은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걷고 대화하고 기도하며 이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존슨 목사는 “혼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큰 힘을 얻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른 접근법으로 다가서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메워나가고 있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국제팀

월드 포커스



▶ 낙태반대 클럽을 금지한 파크랜드 고등학교, 퀴어퍼레이드 티셔츠 제작 거절,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반대 운동 시위 장면(출처: Life News, Christian Post, Lexington Herald 캡처).

美 고교, 동성애 클럽은 인정... 낙태반대 클럽 거부

최근 미국에서 종교 자유와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엇갈린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위축된 종교 자유와 낙태금지 가 힘을 얻고 있는가 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여론이 여전한 모습이 그것이다. 몇 가지 소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고등학교 당국이 학생들이 주도하여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보호운동 클럽' 설립 요청을 거절,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고 라이프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뉴스는 토마스모어 협회 변호사들이 해당 고등학교에 서신을 발송,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과 이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논란은 지난 가을부터 본격화됐다. 생명보호운동 동아리 결성을 위해 모임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절차를 밟던 중, 학교 당국은 클럽 신청서와 담당 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학생들은 그에 따랐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 신청에 대해 너무 '정치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모임'으로 간주, 끝내 설립을 허락하지 않았다.

라이프뉴스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그러나 동성애 연대나 정치과학 클럽, 패션 클럽과 같은 모임은 허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본교의 클럽 활동의 목적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창출하며 삶의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임신과 육아 학생들을 지원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는 우리들의 권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의를 가져올 기회는 거절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토마스모어 협회는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생명보호운동 클럽 결성을 거절하는 것은 학생들의 헌법 수정 1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임을 허락할 것을 요청했다. [GNPNEWS]

동성애 티셔츠 제작 거부한 美 업체, 소송에서 승소

미국 법원이 한 티셔츠 제작업체에 대해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 지지 티셔츠 제작을 거부할 수 있다며 종교적 자유를 허용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핸드 온 오리지날(Hand On Originals)이라는 회사는 지난 2012년에 퀴어 퍼레이드 이벤트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 제작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 블레인 아담슨과 직원들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동성애 관련 단체는 행사를 마친 뒤, 아담슨과 이 회사에 대해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핸드 온 오리지날측은 이같은 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결정



▶ 핸드 온 오리지날 회사 로고

을 선하게 이끄실 것으로 믿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유수호연맹(ADF)의 한 변호사는 “미국인들은 언제나 믿음의 자유, 믿음을 표현할 자유,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을 절대 표현하지 않을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을 믿든지 간에 법이 개인의 깊은 신념에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안심시켰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GNPNEWS]

美 켄터키 주, 대부분의 낙태 시술병원 영업 중단

미국 켄터키 주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대부분의 낙태 시술병원이 문을 닫으며 낙태 합법화 반대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SRN뉴

스는 최근 한두 개의 병원을 제외한 낙태 시술병원의 영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국제팀

기획 | 조선선교열전 (2) - 전라북도 편

이수정, 일본에서 조선인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의 기독교 선교역사는 132주년을 맞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이수정이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독보적이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을 뿐 아니라, 어두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불러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조선의 마케도나인'이었다.

학식과 소양이 풍부했던 호남 출신 학자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해준 농학자 츠다는 미국과 유럽에까지 유학을 다녀온 저명한 학자이자 신앙이 뜨거운 감리교인이었다. 그는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해 조선에서 찾아오는 양반들에게 농학을 가르쳤다. 이수정 역시 농학자이자 친구였던 안중수의 소개로 츠다를 찾아갔다. 그는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전해주며 "공자의 빛은 호롱불과 같아서 방안만 비추는 빛이라면, 예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다."고 말했다. 츠다의 집에 걸려있는 한문으로 된 산상수훈 족자에는 유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황금률이 보석처럼 박혀있었다. 나라의 가난을 해결하러 간 이수정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

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미 츠다를 만났던 안중수 역시 성경을 받았지만, 국법을 어기면 처형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복음을 뿌리쳤다. 그러나 이수정은 달랐다. 그는 선물로 받은 성경을 단숨에 읽고, 깊은 신앙의 감동으로 기독교에 입문했다.

뿌리 깊은 유학 사상을 뒤흔든 산상수훈

이수정은 1883년 4월 29일, 일본에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녹스(G.W. Knox)와 야스가와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그는 비슷한 시기 만주에서 로스(J. Ross)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백홍준, 이응찬 등과 함께 초기 개신교 신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당시 일본은 1873년 천황의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기독교가 정착되

고 있었다. 이수정이 세례를 받은 1883년에는 일본에 대성령운동이 일어났다. 그해 1월, 요코하마는 기도주간을 설정하고 목사, 전도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4월과 5월에는 오사카와 도쿄에서 대집회가 열렸다. 이수정은 5월 8일부터 시작된 도쿄의 '제3회 전국기독교인대친목회' 넷째 날이었던 5월 11일 공중기도를 맡았다. 일본 교회 초대목사였던 오쿠노의 제안이었다. 그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말로 기도했다. 당시 기도회에 참여했던 일본 교계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그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여기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의 말을 알아듣지



▶ 1883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기독교인대친목회에 참석한 이수정(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그에게 신앙성경을 주었던 농학자 츠다(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니지마 조(앞에서 두번째 줄 네번째)목사와 우치무라 간조(앞에서 두번째 줄 오른쪽 다섯번째).

못한다는 사실이 그 장소와 광경을 한층 더 오순절과 같이 만들어 주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 무언가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온 회중이 느꼈다."

일본 대집회에서 우리말로 공중기도

집회의 유일한 조선인이었던 이수정은 의관을 정제하고 조선의 대표로서 품격을 유지하며 일본 교계 지도자들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었다. 세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었다. 이수정의 신앙은 깊고 담대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한시로 지어 서경공회(현 도시사교회) 니지마 조 목사에게 남겼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뿌리가 마름과 같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하게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리라...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열리고결실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깊음이 있고 심히 크고 달도다. 그 몸통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아서 눈과 서리가 와도 가히 시들게 하지 못하느니라. - 사랑하는 서경공회 형제자매에게. 조선 이수정." <계속> [GNPNEWS]

참고문헌: <전라북도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의미, 2012>



▶ 니지마 조 목사 생가에 있는 이수정의 신앙고백이 담긴 한시 병풍(출처: CBS 특집 다큐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 이수정' 캡처).



선교 통신

사우디아라비아, 소수의 성도들을 위한 사역자 "절실하다"

무슬림 배경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무슬림 배경 그리스도인(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의 삶을 소개한다. <편집자>

이슬람법인 샤리아만이 오직 공식적인 법률로 채택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모든 곳에 교회 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누라(Noor)는 어릴 때부터 학교로부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인에 비해 열등하며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배웠다. 성격이 좋았던 그녀는 장학금을 받고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그 기간 중 비로소 자신이 비무슬림들에 대해 배워왔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학 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된 누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른 크리스천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문제없이 유학을 잘 마치고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했지만 해외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누라는 이러한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고, 누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던 미국의 크리스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크리스천들과 접촉했다.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누라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화를 누렸다. 그녀는 소그룹 모임과 지하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외국인 친구들에게 영어를 배우거나, 또 그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위장하며 비밀스럽게 신앙을 유지했다.

그러나 누라는 다른 가족들이 이



▶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많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슬림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이 그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신앙생활이 수개월 이어지면서 누라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 식어가기 시작했다. 지역 사회에서 크리스천의 숫자가 소수인 데다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모임과 예배가 진

부하게만 느껴졌다. 말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는데, 이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매번 똑같은 형식의 기도와 무슬림 예배를 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많은 무슬림 배경 신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도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고립되고 거부되더라도 강하게 신앙을 드러내고 살든지 아니면 계속 이전의 방식으로 무슬림처럼 위장하며 마음으로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 [GNPNEWS]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 끝나는 날 천국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의 걸음으로만 달려온 윤민선 전도사(동광교회). 파워 크리스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윤 전도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교통사고.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합의금.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 13:8)” 사랑의 빛 외엔 다른 빛은 질 수 없어 집을 정리해 치료비로 지불하고 만삭의 몸으로 가방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윤 전도사의 광야 길을 들어봤다.

-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란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병원에 달려갔는데 남편 옷이 벗겨져 있고 피가 뒤범벅이 된 거예요. 의식도 없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했어요. 남편이 우유배달 하다가 고등학교 남자 아이가 술 먹고 운전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난 사고였어요. 그런데 사고 당시 음주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남편 과실이 더 크다고 나왔어요. 그땐 학생 부부여서 전세금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전세금 일부를 빼서 합의금으로 지불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남편 병원비는 아직 남아있었죠. 그동안 공부하면서 파워 크리스천이 되어 세상을 섬기자고 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모든 꿈이 사라지자 남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추천받아온 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신앙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남편의 교통사고로 산산조각 난 꿈

- 훈련은 도움이 되었나요?
“가난한 마음으로 훈련에 참석한 남편은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후 저도 그 훈련에 참가하면서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전도사였지만 전 그때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힌 줄 알았죠. 비로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이 실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삶이 쉬워졌어요. 주님이 이제 제 안에 사시니까요. 그렇게 걱정거리 많아도 별 근심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고지서가 또 날아온 거예요.”
- 어떤 고지서였죠?
“상대방 치료비를 24개월로 분할한 고지서였어요. 우리는 합의한 금액에 상대방 치료비까지 포함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말 그대로 곡을 했어요. 치



왼쪽부터 큰 딸 김주하, 예하, 윤민선 전도사

말씀만 따라가는 윤민선 전도사

료비가 남아있는 남은 전세금에 좀 모자란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날 아침 목상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여리고 정탐소식을 듣고 밤새 통곡했던 민수가 14장이었어요. 아침부터 곡했던 내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이상 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리저리 궁리하며 남은 빛을 어떻게 갚아나갈까 고민했는데 고지서를 탁 접으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어딘가를 다녀온 남편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더군요.”
-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빛을 정리하는데 반대할까 봐요. 그때 병원비와 학자금 대출금의 빛이 있었죠. 만약 이 빛을 정리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 이사도 가야 하는 데다 아이도 낳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도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돌아온 남편에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거라고 고백했죠. 결국 남아있는 전세금으로 그 빛을 한번에 다 갚기로 하고 집을 정리했어요. 그때부터 믿음의 걸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 쉽지 않은 걸음이었겠네요.

“빛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경기도 부천에 월세로 집을 얻어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휴학하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직장 없이 학교만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녁으로 나팔을 불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첫째 아이 주하를 가운데 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만 드렸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은혜예요. 당시 저는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사례비로 월세 내고 아주 적은 재정으로 생활했죠. 사실 생활하기 불가능한 금

액이었는데 매 순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남편이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가게 된 아웃리치를 통해 이란에 루리 족에 대한 마음을 받게 됐어요. 500만 명이 나 되는데 선교사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었죠. 저는 당연히 순종해야지 마음먹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몇 사건들을 통해 이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며 시작된 믿음의 걸음



▶ 말씀에 따라 집을 정리한 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닐때 남편(김종철 집사)과 유모차 속 큰 딸의 모습.

- 어떤 일이었나요?
“하루는 아이를 안고 지하철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만난 복음을 나누고 나서 지금은 이란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란에 계신 선교사님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한국에 나와 있다면서요. 그렇게 이란 선교사님을 소개받게 됐죠. 비슷한 시기에 다시 복학한 학교에서 이란 한인교회 사역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안됐죠. 찬양 인도와 운전 가능한 싱글 사역자를 뽑았거든요. 저런 아무것도 해당이 안됐어요. 그래도 지원해보고 싶어 저와 남편이 복음

을 만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적어서 이력서와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란으로 와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확실한 주님의 사인으로 받고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출국 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때가 2010년 중동에 민주 항쟁이 났을 때였어요. 이란행 비자발급이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 사이 집 계약 기간이 끝나게 돼서 일단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끝내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했죠. 우선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안됐다는 것을 비춰주셨어요. 남편은 너무 가고 싶어 지원했지만 저는 남편이 간다니까 순종한 거였거든요. 사실 사역도 잘 모르는데다 아이와 함께 간다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였어요. 일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니기로 했죠. 당시 아이가 한창 쉬를 가릴 때여서 오줌통 하나, 트렁크 하나 들고 두 달 동안 돌아다녔어요. 처음 한 주는 전라도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과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갔어요. 그다음엔 선교사 안식관이나 교회 등 여기저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돌아다녔어요.”

- 두 달 동안의 시간은 어땠나요?
“전 조금 서글웠는데 남편은 기뻐했어요. 처음엔 돌아다니면서도 오직 이란에 갈 준비만 했어요. 그런데 아이도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다닌다는 게 딸 주하에게는 신나는 일이었겠죠. 아이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깨닫기도 했어요. 저는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데 아이는 어디를 가는지보다 엄마만 있으면 됐어요. 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보다 어디에 가는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 어느 날은 일주일간 머물 곳이 서울 충정로역 근처여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여행 가나 봐요?” 우리 여행 가방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니요, 국내예요.”라고 대답했더니 잘못 들으시고 다시 물으시길래 ‘충정로요.’ 그랬더니 ‘충청도도 좋지.’ 그러시는거예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렇지, 우리 여행 다니는 거지.’라고 생각되면서 천상명의 시 ‘귀천’이 떠올랐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땅에서 이렇게 여행 다니다 천국에 들어가

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더욱 사모되는 시간들이었어요.”

- 힘은 드셨지만,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사역했던 교회 사모님이 알게 되시면서 교회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와 살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기도해보겠다고 말하고 당시 인천의 섬에 있는 선교단체의 열방기도센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교회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은혜였죠.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지나다보니 불편한 거예요. 성도님들과 마주치면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땐 남편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둘이 맨날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의식돼서 남편에게 ‘나가서 청소라도 해. 새벽기도 빨리 나가야지.’라며 다그쳤어요. 밖에 누가 없나 문틈으로 보기도 하고, 스스로 사찰 전도사라고 자칭하면서 여기 저기 분주하게 6개월을 지냈어요. 그러다 친정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병간호를 위해 친정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많이 호전되셨죠. 그러나 그것도 6개월이 지나자 또 얹혀있는 모양새가 됐어요. 결국 기도하고 다시 방을 얻어 나왔죠. 저는 다시 사역을 시작했고 남편도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열방으로 나가기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으로 열방을 꿈꾸며

- 계획대로 살아왔다고보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온 걸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남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남편은 말씀이 임하면 생명과 같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둘째 예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남편이 일용직을 하면서 받아온 돈 얼마를 떼서 어느 한 가정을 돌보자고 했죠.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했는데 돈을 보내려고 할 때쯤에 항상 월세가 약간 모자란 거예요. ‘월세를 먼저 내야 하는데.’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심해졌어요. 7개월째는 너무 어려워서 남편에게 그만하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말씀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못 받았어. 근데 내 마음이 힘들어.’ 그랬더니 ‘네 마음이 먼지냐? 말씀이 먼지냐?’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은혜의 복음 (5.끝)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왕명을 거역한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았는가? 아니면 자기감정으로 받았는가? 자기 연민, 우울증, 정욕, 자존심 등 자신의 감정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왕의 명령은 어떻게 취급했는가?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반역일 뿐이다. 진정한 부흥을 위해 이 반역자를 처단해야 한다. 폐위된 왕, 사울의 저주 받은 명령은 십자가에 믿음으로 내던져야 한다.

자기를 포기치 않는 것은 반역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엡 2:3)” 이 진노의 자식은 반역자에 불과하다. 믿음으

로 여지를 끊지 않은 채 여전히 자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 15:22~23a)” 불순종을 믿음의 연약함으로 치부하지 말라. 듣지 않는 것,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사술의 죄와 같다. 복음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반역자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하다. '나'에 대하여 철저히 죽어야 한다. 때늦은 후회는 결코 없다. 다만 믿음이 없을 뿐이다.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안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뭉서리쳐야 한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한 부흥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왔을 때, 유혹을 느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 역울함이라도 한번 밝혀 보고 싶었을 테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지 않았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을 오히려 후회했다. 다윗, 그가 일평생 견제(牽制)하고 있었던 것은 반역죄였다. 그의 삶 안에 잔재해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드러내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인구조사였다. 그 사건을 통해 완전한 회개와 용서와 자비가 확인된 자리는 성전 터가 되었다. 끈적거리는 자아 사랑의 여지를 아직 끊지 않고 있다면 속히 돌아켜야 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여주시는 은

혜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삼손과 우편(右便) 강도의 태도는 빛나간 인생의 최후 소망이며 해답이다. 그러므로 때늦은 후회란 결코 없다. 믿음이 없을 뿐이다. 우리 믿음의 마지막 근거는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 받은 것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이 민족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다. 지금까지 에베에셀의 은혜가 있었다면, 지금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미래엔 여호와이레의 은혜로 붙드시실 것이다. 이 은혜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무서운 자아의 고집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자. 우리 세대에 그 날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2016.5 메시지 정리). [GNPNEWS]



일러스트=임아람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LOG미션 대표)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2017 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발매

창조주이자 만유의 대주재, 유일하신 하나님이 별래고 만지같은 인생인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말이다.

당신, 부르심 받은 적 있는가?

죽음도 붙들지 못한 사람 에녹은 그저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더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다.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부르심과 헌신
메시지서 1:10
오디오CD-1A/B
Track1 (00:00-27:00)
Track2 (28:00-52:00)
복음과 기도미디어
GNM-031CA

부림절 사건 New 오디오 CD 발매

꼴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부림절 사건
꼴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메시지서 4:13-17
오디오CD-1A/B
Track1 (00:00-26:00)
Track2 (27:00-55:00)
김용의 선교사
GNM-030CA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정쩡하게 세상을 택한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자 세상에 폭 젖어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다.

뒤쳐진 인생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없고 자책감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드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넌 여전히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순종하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

각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택배비 별도)
메시지가 CD 2장에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기도로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 말 때문에 11개월까지 겨우 순종하게 됐죠. 근데 더는 못하겠어서 남편에게 ‘여기까진 것 같아.’ 단호하게 말했는데 한 달 후 그 가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직장을 구했다고요.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밖에 못했다고요. 그렇게 서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 그래도 주님이 그 순종을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해 보면 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통해서나 목마름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남편을 통해서나 목마름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최근에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그동안 모교에서 진행했던 기도모임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사실 둘째 아이 출산하고 기도모임을 쉬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니까 쉬기는 커녕 갓난아이 수유를 해가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 모교에서 하는 기도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같은 학교 출신 자매와 함께 열방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슬람열방기도모임과 연합하게 됐

데요.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았지만 네댓 명이 모여 기도한 게 벌써 6년이 지났네요. 실감이 가느라 난 우리의 기도지만 기도한 건 다 이루어주셨어요. 재작년부터 말씀이 학교에서 선포되도록 기도했는데 올해 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한 시간씩 말씀을 읽는 모임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니 더욱 기도를 쉬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제목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꾸 육아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남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Y.K.

여기 도외의 영혼을 사랑하시던 순경원도사님은 언젠가 이

▶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묘 앞에서



“십자가에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친구도 사귀었으며 교회는 저의 집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한 해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때부터 형이라 부르도록 강요당하고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고 주님의 은혜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옮긴 뒤, 저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강한척 하며 오히려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항상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늘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생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척



일러스트= 박남희

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저는 음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위 행위와 음란한 동영상에 없는 삶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모님 몰래 휴대전화를 가지고 음란물을 보고, 교회에서도 보았습니다. 길을 갈 때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음욕을 품고 성관계를 갖고도 싶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중에 주님을 만났지만,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에 기도를 해

보고, 나름의 노력도 해봤지만 죄를 사랑하고 죄와 하나가 되었던 죄인인 나로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찾아보지도, 은혜를 구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사탄에게 목줄이 잡힌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사탄이 하자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를 주시며 ‘내 아들이’ 부르셨지만, 저의 주인은 여전히 사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

“
2천 년 전,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

두려워하는 ‘나’,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찬 ‘나’, 너무나 음란했던 ‘나’, 주님께 반역하며 죄를 사랑했던 ‘나’는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저의 죄인 된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사탄과 죄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런 쓰레기보다 못한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그분의 십

자가 때문에 저는 새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만세 전에 저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원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가 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음란하지 않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며 전부이십니다. 저를 따돌렸던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평생 붙들고 살았던 사람의 관심, 인정, 평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스스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 주님이 절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승리케 하십니다! [GNPNEWS]

고복근 형제

부흥을 위하여 | 전도자 지명 이야기 (2.끝)

“계속된 기도로만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말씀을 가지고 북한으로

다음날 새벽 일찍 지명(가명)이 집주인을 따라 찾아간 곳은 허름한 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머리가 하얀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다.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가봐야겠어요.” 지명을 데려온 사람은 바빠 걸음을 돌렸다. “어서 들어와요.” 아주머니를 따라 들어가니 몇 명의 청년들이 전날 밤에 보았던 검은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이 사람들도 북조선에서 왔어요. 지금 예배하던 중이니 잠시만 이쪽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머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북조선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라고 청년들에게 설명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지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

그곳에서 지명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매일 매일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

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지명은 자신도 모르게 빨리 북한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저도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윽고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날에 강가에 도착하였다. 산에 있다가 초저녁에 강으로 내려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기도하였다. 성경과 찬송가 테잎이 넣어진 가방을 메고 가니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갑니다. 조선에서 나올 때 빈 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지워서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시라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초저녁인데도 주위에 북조선의 경비병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길을 지나 집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보며 지명의 마음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저녁에 어떻게 그렇게 왔나?” 집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순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한 지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궁금해졌다. 알아보니 지명이 강을 건너던 바



▶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파송을 받고 있는 모습(출처: 모퉁이돌선교회).

로 그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평소에는 방영되지 않던 영화가 상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영화를 보려고 북조선 경비병들이 모두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도의 힘, 절감하며

북한에 얼마간 있다가 다시 나온 지명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곳에는 온통 사탄의 영 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믿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날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자연히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자고 일어나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니까 육적인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만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몇 번이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지명은 다시 중국으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훈련을 받으며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나의 소망

병들면 어떻습니까?

손양원 목사에게 가끔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병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손 목사는 특별히 병 고침을 위한 안수기도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들면 어떻습니까. 몸에 병이 나서 신체를 잃어버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나요.” 이런 말로 그 병자를 돌려보낼 뿐이었다.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같이 보내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지만 그들의 병든 상태를 나쁘다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에서 있는지를 돌아보았다. [GNPNEWS]



뷰즈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제 동생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서서평(E. J. Shepping, 1880~1934, 사진) 선교사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복음

에 대한 열정 하나로 한국에 와 일생을 마감한 의료 선교사이다.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할 것 없이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며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들을 섬겼다. 54세의 나이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담요 반 장, 강냉이가루 두 홉, 동전 일곱 개가 전부였다. 섬김의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던 그녀의 인생을 그린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하고 작성한 10대 어린이들의 감상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체험학습으로 가게 된 영화관에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보게 되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조선에

대해 듣게 되고 조선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선교사님이 처음 조선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사진에 얼굴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나병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교사님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돌보시고 특히 어린 여자 고아들을 섬기셨다.

사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어렸을 때에 엄마에게서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12살의 나이로 혼자 미국으로 엄마를 찾으러 갔으나 다시 버림받았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조선의 부모 없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지만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품고 섬기셨다. 선교사님은 17년이 지난 후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엄마를 찾으셨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버림받으셨다. 상처 받고 고난 받은 선교사님은 버림받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주셨다. ‘스프루’라는 풍토병에 걸리고 나서도 성경학교를 섬기실 정도로 열정을 보여주시다 끝내 돌아가셨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것은, 다 나눠주고 반쪽이 된 담요, 강냉이 두 홉, 동전 일곱 전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모자라 장기까지 기증하셨다. 자기 자신은 영양실조 때문에 위와 장이 찌그러져 있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으면서도 모든 것을 조선에 주고 가셨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생을 보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침대 위에 새겨진 문구가 내 마음에 새겨졌다. 내겐 섬김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말을 듣지 않고 까부는 동생들을 보면 너무나 어려웠다. 아픈 지체들을 보면 피하고 싶었다. 친구들이 따돌리면 같이 차별했다. 선교사님의 삶을 보며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다. 내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그것이 섬김으로 나타낼길 기대한다. 동생

들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며 한걸음씩 천천히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최다윗(12)

“저도 선교사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저의 이름은 최주이입니다. 이름의 뜻은 ‘주님이 이루십니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픈 친구들을 보면 “내가 병에 옮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친구들을 미워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름의 뜻은 ‘천천히, 평온하게’입니다. 선교사님은 자기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셨으니까요. 나는 지금



어리고 9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선교사가 되어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할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선교사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아픈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선교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GNPNEWS] 최주이(9)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아들의 이름에 담긴 평생의 은혜, ‘공홀’

지난 몇 년간 해외 선교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내는 조만간 있게 될 출산으로 인해 여섯 살 된 딸과 함께 한 달 먼저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짐 정리와 사역 인수인계 등의 분주한 일정들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타서 눈을 감으니 해외 사역지에서 보냈던 시간들과 주님 안에서 만났던 분들의 모습,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감격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성경을 펼쳤는데 놀라운 말씀들이 내 영혼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 내 죄를 멀리 옮기신 공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공홀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나니”(시 103:10~13) 다윗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은 하늘 아버지의 인자와 물리적으로 가장 먼 개념인 동과 서 보다는 더 먼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는 주님의 공홀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도 고아처럼 과부처럼 불쌍하게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청년 시절.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한 나의 영혼은 안식,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만나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공홀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마 5:7)



일러스트= 이진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주님 사랑, 공홀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예정대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은혜를 주신 말씀과 아들의 이름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한 채 며칠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공홀’이라는 한자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홀’이라는 한자

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음 심(心), 피 혈(血). 마음에 흘러내리는 피. 심장의 피가 다 흘러내리는 것. 그게 공홀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주님의 사랑이 공홀이었고, 공홀히 여김을 받은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안 홀(安 恤)’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10년 만에 첫째 딸 여경이, 15년 만에 둘째 아들 홀이를 주셨습니다.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나를 그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홀이 아이들과 공동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마 5:7) 마라나타!

[GNPNEWS]

안승용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5. 26 ~ 6. 8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김민성 김애심 김지에 노길상 서영숙 안수경 오경숙 윤경석 이선세 이정희 이준진 이진관 정영숙 조형광 황윤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마중물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목자교회 산돌교회
새마을교회 새순교회 웹 양덕원김리교회
은혜선일교회 전주은혜샘교회
좋은감리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